



OFFICIAL BROADCASTER

KBS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은 KBS와 함께!



스포츠 중계방송의 명가 KBS가 9월 23일 개막하는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의 생생한 감동과 가슴 뛰는 승전보를 전한다. 김연경, 이영표 등 실력과 화제성을 모두 갖춘 어벤저스급 해설진으로 무장한 KBS는 국내 중계방송사 가운데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의 가장 많은 종목을 중계할 계획이다.

축구는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명쾌한 해설과 놀라운 승부 예측으로 시청률 1위를 달성했던 이영표 해설위원이 5년 만에 다시 KBS에 돌아와 중계를 맡는다. 2002 한일월드컵 영웅 가운데 한 명이자 '최고의 축구 해설가'로 손꼽히는 이영표 위원은 해박한 지식에 바탕을 둔 물 흐르는 듯한 유려한 해설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배구와 비치발리볼은 이번에 처음 중계방송에 도전하는 김연경 해설위원이 책임진다. 2020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4강의 주역인 김연경 해설위원 특유의

재치 있고 뛰어난 입담을 뽐내는 해설이 기대된다.

올해 3월 열렸던 WBC 경기 중계방송에서 명품 호흡을 자랑하며 '용호쌍박'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야구의 박찬호, 박용택 해설위원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역시 믿고 듣는 중계를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또한,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양동근 위원은 농구 해설을, LPGA 투어 9승이라는 화려한 전적의 최나연 위원은 골프 해설을 맡아 정확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KBS는 펜싱에는 최병철, 기계체조에는 여흥철, 스포츠클라이밍에는 김자인 등 해당 종목별 국가대표 출신 레전드들을 해설위원으로 포진시킴으로써 최고의 아시안게임 중계를 약속하고 있다.

I·N·T·E·R·V·I·E·W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의 KBS 해설진을 소개하는 온라인 제작발표회가 9월 1일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해설위원들의 소감과 선수들을 향한 응원 인사를 들어봤다.



김연경(배구 해설위원): 긴장도 많이 되고 설렌다. 시청자분들이 해설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직설적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처음 해보는 해설이기 때문에 조언을 많이 구해서 잘해야 할 것 같다. 선수들을 옆에서 응원해주고 같이 호흡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KBS 해설위원으로 함께하게 됐다. 저는 아시안게임 금은동 메달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현장에서 선수들에게 이야기해주겠다. 배구는 KBS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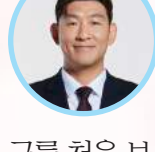
박찬호(야구 해설위원): 한국어 선생님한테 스피치도 배우고 입에 연필까지 물면서 말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젊고 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 야구팀이 더 성장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선전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KBS 해설위원들과 함께하는 이번 아시안게임이 국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야구팀 해내자!



이영표(축구 해설위원): 지금 이강인 선수가 부상 상황이라 아직은 출전할 수 있을지 잘 모르지만, 만약 대표팀에 합류해 경기를 하게 된다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저는 선수 때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지 못했지만 2018년 해설로 우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뻐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자신이 흘렸던 땀의 대가를 반드시 받았으면 좋겠다. 화이팅!



박용택(야구 해설위원): 박찬호 해설위원이 우려했던 대로 말이 많지만, 내용들이 상당히 좋아서 저는 옆에서 서포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타이완이 큰 적수이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 야구는 아시아 최강이다.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오면 좋겠다. 아시안게임 야구는 KBS '용호쌍박'과 함께!



양동근(농구 해설위원): 어깨가 무겁다. 농구 팬들에게 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영상도 많이 보고 있다. 농구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선수들도 국민 여러분께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면 좋겠다. 대한민국 남자농구 화이팅!



최나연(골프 해설위원): 골프 자체를 설명하는 것을 워낙 좋아해 이번 해설이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골프 유망주로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 현장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최대한 차분하면서도 생생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중계하겠다.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맛있는 중계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나라 대표팀 주요 경기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리는 이번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에는 총 45개국이 참가해 40개 종목에서 482개 경기를 치른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최대 금메달 50개, 종합 3위 수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KBS의 특급 해설진과 함께 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생생한 중계 현장을 미리 쏴본다.

3회 연속 금메달 노린다!



남자 축구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2회 연속 우승국으로서 3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황선홍 감독의 대한민국 남자축구 대표팀은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개막 이전에 시작되는 조별리그에서 쿠웨이트, 태국, 바레인과 함께 E조에 속해 경기를 펼친다. 한국은 9월 19일 쿠웨이트와 E조 1차전을 시작으로, 21일 태국과 2차전, 24일 바레인과 3차전을 벌일 예정이다. 객관적인 전력상 한국 남자축구팀은 E조에서 무난히 1위를 차지하며 결승 진출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선 조별리그를 통해 16강을 가린 뒤, 8강-준결승-결승을 통해 메달 색깔을 결정짓게 된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3연속 우승이라는 새 역사를 써 내려갈 경기마다 KBS가 함께한다.

9월 24일 (일) 20:30 ~ 22:30 KBS 2TV E조 예선 대한민국 : 바레인

9월 27일 (수) KBS 2TV 16강
10월 1일 (일) KBS 2TV 8강
10월 4일 (수) KBS 2TV 준결승전
10월 7일 (토) 21:00 ~ 23:00 KBS 2TV 결승전

이제 4연패다!



야구

2010년과 2014년, 2018년에 이어 4회 연속 아시안게임 우승을 목표로 하는 야구는 이번 대회에 박빈, 문동주 등 기대주들을 앞세운 대표팀을 꾸렸다. 우리나라는 홍콩, 타이완, 그리고 앞으로 결정될 예선 통과국과 함께 B조에 배정됐다. 10월 1일 홍콩과 B조 첫 경기를 치르며, 다음 날인 10월 2일 타이완전에 나선다. 10월 3일에는 예선 통과국과 3차전을 벌인다. A, B조 상위 2개국을 '슈퍼 라운드'로, 하위 2개국은 '순위 결정전'으로 진출하게 된다. 슈퍼 라운드 4개국 가운데 1, 2위가 10월 7일 금메달 결정전에 나선다. 평균 연령 23.2세, 젊은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우리나라 야구팀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10월 1일 (일) 19:30 ~ 22:30 KBS 1TV or 2TV B조 예선 대한민국 : 홍콩

10월 2일 (월) 19:30 ~ 22:30 KBS 2TV B조 대한민국 : 타이완
10월 3일 (화) 13:00 ~ 16:00 KBS 2TV B조 대한민국 : Q1
10월 5일 (목) ~ 6일 (금) KBS 2TV 슈퍼라운드
10월 7일 (토) 19:00 ~ 22:00 KBS 2TV 결승전

목표는 금메달!

2014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주역 김선형과 에이스 허훈 선수가 참여하는 남자농구 역시 이번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의 목표는 금메달이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는 동메달을 따내며 아쉬움을 삼켰지만, 김선형과 허훈을 중심으로 다시



남자 농구

한번 명예 회복에 나선다. 한국 남자농구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인도네시아, 카타르, 일본과 함께 D조로 묶였다. 9월 26일 인도네시아, 28일 카타르전을 치르고, 30일 일본과 맞붙는다. 남자농구가 예선을 통과하면 10월 3일 8강전, 4일 준결승전을 거쳐 6일 결승전을 치른다. 그 현장을 KBS 중계가 함께한다!

9월 26일 (화) 18:30 ~ 20:30 KBS 1TV D조 예선 대한민국 : 인도네시아

9월 28일 (목) 14:30 ~ 16:30 KBS 1TV D조 예선 대한민국 : 카타르
9월 30일 (토) 12:00 ~ 14:00 KBS 2TV D조 예선 대한민국 : 일본
10월 3일 (화) 21:00 ~ 23:00 KBS 1TV 8강
10월 4일 (수) 17:00 ~ 19:00 KBS 2TV 준결승전
10월 6일 (금) 21:00 ~ 23:00 KBS 1TV 결승전

유망주들과 금메달 사냥!



골프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남녀 모두 아쉽게 금메달을 놓친 골프는 이번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유망주들과 함께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여자부에서는 김민솔, 남자부에서는 장유빈 선수가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2023년 제4회 드림파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며 상승세를 탄 김민솔과 2023년 KPGA 군산CC 오픈에서 정상에 오른 장유빈이 이번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이다. 골프는 9월 28일 시작해 10월 1일까지 진행되며, 총 4일간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9월 28일 (목) 10:00 ~ 19:00 KBS 2TV 남/여 1라운드

9월 29일 (금) 10:00 ~ 19:00 KBS 2TV 남/여 2라운드
9월 30일 (토) 7:30 ~ 19:00 KBS 2TV 남/여 3라운드
10월 1일 (일) 7:30 ~ 19:00 KBS 2TV 남/여 최종라운드

이제는 명예 회복!



여자 배구

2021년 김연경 선수가 대표팀을 은퇴한 이후 국제대회에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보였던 여자배구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명예 회복에 나선다. 박정아 선수를 주장으로 한 여자배구 대표팀은 조별리그 C조에 베트남, 네팔과 함께 배정됐다. 한국은 10월 1일 베트남과 조별리그 1차전, 10월 2일 네팔과 조별리그 2차전에 나선다. 조별리그 상위 2위까지 8강전에 출전할 수 있으며, 8강전-준결승-결승을 거쳐 우승국이 가려진다.

10월 1일 (일) 11:30 ~ 14:00 KBS 2TV C조 예선 대한민국 : 베트남

10월 2일 (월) 11:30 ~ 14:00 KBS 2TV C조 예선 대한민국 : 네팔
10월 4일 (수) KBS 2TV 1~8위 순위전
10월 6일 (금) KBS 2TV 준결승전
10월 7일 (토) 20:30 ~ 23:00 KBS 2TV 결승전

〈히든 어스〉 한국방송대상 대상 수상



9월 4일 KBS TV공개홀에서 열린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KBS 대 기획 한반도 30억 년 〈히든 어스〉(이하 〈히든 어스〉)가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히든 어스〉는 시생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30억 년에 걸친 한반도 지질 역사를 전달한 과학 다큐멘터리로서 국내 방송 최초로 8K 초고화질 실사와 그래픽으로 장대한 영상미를 제공해, 한국인의 시선으로 한반도 지질 형성의 과정을 담아낸 ‘한반도 자연사 교과서’라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뉴스 9〉 ‘엘 성착취 범죄’ 추적 보도, 〈시사기획 창〉 신년특집 ‘알고리즘 인류’, 대구방송총국의 〈시사기획 창〉 ‘육창, 여기 사람 있어요’, 춘천방송총국의 특집 다큐 〈해무 : 북위 38도 36분 51초〉, 〈불후의 명곡〉 ‘Rock Festival in 강릉’, MZ세대를 위한 라디오 〈STATION Z〉 ‘DISCOVER-새로운 K-POP을 향해하다’, 〈임백천의 백 뮤직〉이 작품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50회를 맞은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은 지상파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 방송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독려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이번 시상식은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수상 소감

〈히든 어스〉를 연출한 이광록 PD에게 대상 수상 소감을 들어봤다.

이상은 정말 받고 싶었고, 받아야 했습니다.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됐고, 부담감이 큰 기획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30억 년의 자연사. 오늘 여기, 우리 삶의 지구적 드라마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초대륙의 시간과 공간에서 떨어져나와 부딪치고 융기하고 깎여 서 우리의 발밑에 와 있는 땅, 암석에 박힌 빅히스토리를 꺼내 기후, 문명, 진화, 우리 삶의 원천을 보고자 했습니다. 장거리 질주였고 조마조마하며 태풍을 건너온 느낌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국토가 참 고생 많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부시게, 눈물나게~

시청자 의견 중 짧은 글들이 찢릿했습니다. “압도적인 유익함, 넷플릭스 꿀더라도 요건 본다”, “와우 명품...수신료 싸다 싸~ 찐심!”, “돌멩이 함부로 차지 말아야겠다. 지구를 읽는 단축키?!” 등등.

순한 맛으로 안방을 지키는 콘텐츠의 소중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 시선의 지구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바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상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청자만 바라보고 두박두박 직진하겠습니다.

KBS 공사 창립 50주년 대기획 〈지구 위 블랙박스〉

〈지구 위 블랙박스〉는 KBS 공사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획한 ‘기후 위기 콘서트’이다. 기후 변화로 파괴되고 있는 국내외 대표 6개 지역을 무대 삼아 최정훈, YB, 김윤아, 모니카, 르세라핌, 정재형, 호시 등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공연들을 4부작 특집으로 펼쳐낸다.

10월 9일 방송될 1부에서는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이 남극을 찾아가, 맥없이 무너지는 빙하 앞에서 홀로 공연하는 모습이 공개되는데, 관측 이래 최저 면적을 기록한 남극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릴 예정이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해 백사장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동해 앞에선 YB의 윤도현이 어깨까지 물이 차오른 수조에 직접 들어가 노래하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전한다.

2부에서는 가뭄으로 메마른 스페인으로 간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와 댄서 모니카, 립제이가 갈라진 맨땅에서 합동 무대를 펼치고, 역시 기후 변화로 나무들이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제주도 한라산에서는 그룹 르세라핌이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공연을 잇는다.

3부에서는 세븐틴의 호시가 탄소 배출이 많은 거대도시 서울의 광화문에서 단독 공연을, 바이올리니스트 대니구와 가수 정재형은 점점 파괴되어가는 태국 맹그로브에서 작은 배를 탄 채로 이동 무대를 통해 기후 위기의 실상을 보여줄 예정이다. 마지막 4부는 1~3부를 진행하며 벌어졌던 뒷이야기들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방송된다.

〈지구 위 블랙박스〉의 구성적인 특징은 음악 다큐멘터리에 드라마적인 요소를 더한 것. 가상의 미래인 2049년, 오염된 환경 탓에 인간의 거주가 힘들어진 지구에서 유일하게 남은 데이터센터인 ‘블랙박스’에 머물던 생존자들이 2023년 찍은 ‘기후 위기 콘서트’를 꺼내며 전개되는 형식이다. 각 부의 생존자로는 배우 김신록, 박병은, 김건우가 출연한다.

연출을 맡은 구민정 PD는 “지난 1년간 기후 재난 지역을 찾아다니며 지구 한 바퀴를 돌았다”며 “음악, 다큐, 드라마가 결합된 새로운 장르인 만큼 제작 과정이 매 순간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신선하다는 평을 넘어 웰메이드 작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2023년은 변화하는 지구의 모습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기후 변화로 위기를 맞이한 지구의 모습을 음악과 함께 기록한 〈지구 위 블랙박스〉는 10월 9일, 16일, 23일, 24일 밤 9시 45분에 방송될 예정이다.



▶ 첫 방송 10월 9일
밤 9시 45분 예정 **KBS**

추석 특집



2만여 명이 하나 된 '역대급 명품 공연' KBS 대기획 <ㅇㅁㄷ 지오디>

KBS 50주년과 god 25주년을 동시에 기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2023 KBS 대기획 <ㅇㅁㄷ 지오디>가 9월 9일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역대급 명품 공연'으로서의 빛을 발했다.

티켓 오픈 3분 만에 전석 매진 기록, 리허설 모습 공개만으로도 화제가 되었던 국민그룹 god는 역시 명불허전이였다.

전체 공연을 구성한 이들의 21곡은 누구나 알 법한 대중적인 곡과 god 팬들이 공연에서 듣고자 원했던 곡들로 조화를 이뤘다.

떼창을 이루며 무대 위 god와 함께 호흡하고 열광했던 스탠딩석 관객들은 물론, 앉아서 관람이 가능한 피크닉석 관객들도 흥에 겨워 자체 스탠딩석을 만들었을 만큼, 전체 관객 2만여 명은 공연 내내 모두가 한마음이 돼 공연을 흠뻑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직접 공연 현장을 찾았던 관객들은 "수신료의 가치, 공영방송의 힘을 느꼈다", "최고의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어 감사하다", "god 공연과 함께 한 불꽃놀이와 드론 쇼까지 정말 황홀했다"는 등의 수많은 후기를 남기며 공연의 감흥을 이어갔다.

2023 KBS 대기획 <ㅇㅁㄷ 지오디>의 환상적인 무대는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8일 저녁 8시 50분 KBS 2TV를 통해 대한민국 전 국민을 찾아간다.

많은 팬과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며 한참 동안 주목받아온 프로그램 타이틀 <ㅇㅁㄷ 지오디>의 의미는 본 방송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 9월 28일 저녁 8시 50분 **KBS**

두 거장이 선사하는 감동의 무대 <김연자·진성 한가위 빅쇼 - 만월만복>

<김연자·진성 한가위 빅쇼 - 만월만복>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은 시청자들에게 흥과 감동을 선사할 선물세트 같은 프로그램이다.

무엇보다 '아모르파티'로 국민적 사랑을 받은 데뷔 50년 차 트로트 가수 김연자와 '안동역에서'로 유명한 트로트계의 대부 진성이 방송 사상 최초로 함께하는 동반 무대라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연자와 진성은 자신들의 히트곡은 물론이고 '강원도 아리랑', '어머니'와 같은 다양한 인기곡들을 함께 부르는데, 소리꾼 박애리, 남상일과 협업한 특별 공연도 더해져 더욱 풍성한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김연자와 진성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진솔한 삶의 이야기까지 털어 놓았다는 후문이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높은 기량을 자랑하는 KBS 전속 두 연주단체가 함께 무대에서 서는 것도 관전 포인트. 우리 민족의 흥과 맛을 들려줄 KBS 국악관현악단과 서양 음악의 매력적인 화음을 담아낼 KBS 관현악단은 풍부하고 화려한 연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연출을 맡은 조성호 PD는 "KBS홀 무대를 꼭 채운 풍성한 볼거리로 추석 특집에 걸맞은 구성을 담아내고자 했다"면서 "프로그램의 부제인 '만월만복'의 의미 그대로 추석 당일 저녁 꼭 차오른 달을 보며 많은 복을 기원하시고, 온 가족이 저희 프로그램을 즐겁게 시청하셔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 9월 29일 저녁 8시 40분 예정 **KBS**



시청자위원이 되어 들여다 본 KBS 청주방송총국

KBS 청주방송총국과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2019년 3월이었다. 충북지방변호사회의 법제인권이사로 활동하고 있을 때였는데, 청주방송총국에서 새로 시작하는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할 젊은 변호사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충북변협 회장님이 추천을 하신 것이었다. 그전까지 뉴스 인터뷰를 몇 번 한 적은 있었으나, 본격적인 방송 출연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서 고사해야 하나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출연을 결심했다. <시사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아나운서가 MC를 보고 변호사, 기자, 리포터, 청년 정치인이 패널로 나와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식이었다. 가을 개편으로 6개월 만에 종영되었지만, 소송업무에만 빠져있어서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지역의 현안들에 눈을 뜨고, 방송 참여를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3년 만에 시청자위원이 되어 KBS 청주방송총국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을 때 감회가 참 새로웠다. 그 사이에 다른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 제안을 받고 고사하곤 했는데, KBS의 제안은 왠지 거절하기가 힘들었다. 친정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일까. 시청자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폭력성, 선정성이 짙은 부분이 나오면 매의 눈으로 찾아내 지적하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부끄러울 정도의 무지에서 비롯된 내 선입견은 첫 회의에 보기 좋게 깨지고 말았다. 다양한 전공의 교수, 기업가, 시민운동가, 복지전문가, 문화예술가 등으로 이루어진 청주방송총국 시청자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식견과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진 전문가들이 한 달간 이루어진 방송 전반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다. 총국장이 진행하고 보도, 편성, 기술, 총무국장이 참여해서 각자 맡은 분야에 관한 방송이나 이슈를 전해주는 건 전혀 예상치 못했기에 상당한 충격이었다.

법률전문가로서 위촉된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든 적이 없었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과거에 참여했던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편성국장이 시청자위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엄정한 평가를 받았겠다

는 생각이 드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속담이 떠오르면서, 시청자위원회 준비를 잘 해와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다.

지역 법조계의 숙원인 ‘청주가정법원 설치’에 힘을 보태고, 올해 K2리그에 입성한 지역 프로축구팀 충북청주FC를 소개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즉각 반영해 프로그램을 편성·제작하는 것에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시청자위원들의 의견을 그만큼 무겁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3.1절을 맞아 충북의 일제 강점기 흔적을 심도 있게 방송해 지역의 근대사를 재조명하고, 일제 침략의 아픔을 널리 알린 <진재>, 지역에서 전통주 제조법을 계승·발전시키는 연구가를 소개한 <우리 수을>, 다문화가정이 많아 작은 러시아로 불리는 청주시 봉명동 소재 초등학교들의 이야기를 다룬 <슬기로운 봉명 생활>, 산부인과가 없는 충북 단양 엄마들의 고군분투기를 경쾌하게 그려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023년 6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최우수상을 수상한 <단양 마더스 클럽>은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지역방송국이 꼭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때로는 진중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그려내어 시청자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되던 시기를 지나 얼굴을 맞대고 회의를 할 수 있었다는 점,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로 회의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었던 점은 자칫 경직될 수 있는 시청자위원회 분위기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주었다. 매달 말이면 밀린 숙제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공영방송으로서 지역 발전과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KBS 청주방송총국의 시청자위원이라는 자부심이 훨씬 크기에 여전히 시청자위원회가 기다려진다.



유달준
청주방송총국 시청자위원 / 법무법인 유인 대표변호사

아시나요? 보석 같은 지역 프로그램

일상탈출을 꿈꾸며 떠나는 캠핑



6월 6일 첫 방송을 시작한 <캠핑일기 休>는 일상탈출을 꿈꾸며 떠나는 캠핑을 통해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간접 휴식을 제공한다.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벗과 함께 빗소리, 물소리, 새소리, 풀벌레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 속에서 현대 문명 기기 속에서 지친 눈과 몸의 피로를 풀고, 가끔은 낯선 곳에서 끼니를 해결하며 고요한 밤 ‘불멍’을 즐기기도 하는 것이 <캠핑일기 休>의 묘미이다.

캠핑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12년째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캠핑을 즐기고 있는 박정환, 황애경 씨 부부가 진행을 맡아 캠핑의 즐거움과 노하우를 알차게 소개한다. 계절과 날씨, 캠핑장별 특색에 맞춰 캠핑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예를 들어 ‘바닷가 캠핑 시 주의할 점’, ‘여름철 가스 보관법’,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캠핑)팩 박는 방법’처럼 현장에서 필수적이면서 유용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또한 매회 캠핑에 게스트를 초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며 치

유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이 프로그램만의 특색이다.

<캠핑일기 休>에서 선보이는 캠핑은 특히 그 지역에 녹아드는 ‘공정캠핑’*과 ‘캠크닉’*이 특징이다. 지역 특산물과 대표 먹거리, 명소를 소개해 지역을 찾아온 낯선 캠핑객과 지역 주민이 모두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진행자인 박정환 씨는 “많은 지역의 캠핑장을 찾아가 봤지만 대전·세종·충남 지역에 이렇게 좋은 캠핑장과 관광지가 있는 줄은 몰랐다”며 “캠핑은 우리 지역 재발전의 기회”라고 전했다.

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혼자선 선뜻 도전하기는 쉽지 않은 캠핑. <캠핑일기 休>를 통해 앞으로도 즐겁고,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캠핑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

▶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10분(대전·세종·충남권) KBS

* 공정캠핑 : 캠핑객이 그 지역의 시장, 상점에서 로컬푸드를 구매해 캠핑장에서 끼니를 해결함으로써 지역 농특산물을 소비하는 것
* 캠크닉 : 캠핑과 피크닉의 줄임말로 숙박을 하지 않아도 지역의 숨겨진 명소를 소풍 가듯 캠핑과 함께 즐기는 것

다양한 장르·세대 끌어안은 악뮤표 음악 토크쇼



정덕현
문화평론가

이적, 이성경, 비비, DJ 250.〈악뮤의 오날오밤〉 첫 회에 등장한 게스트들을 보면 이 새로운 음악 토크쇼가 가진 포용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4050 세대에 친숙할 수 있는 이적은 물론이고 1020 세대가 열광하는 비비가 함께 무대에 올랐고, 배우 이성경과 심지어 최근 가장 핫한 프로듀서이자 DJ로 주목받는 DJ 250까지 더해졌다. 다양한 세대만이 아닌 다양한 장르 영역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 시즌즈〉라는 큰 그림 안에 〈박재범의 드라이브〉, 〈최정훈의 밤의 공원〉을 거쳐 이제 시즌3에 해당되는 〈악뮤의 오날오밤〉이 문을 열었다. 〈더 시즌즈〉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시즌제를 추구하겠다는 것이고, 박재범이나 최정훈 또 악동뮤지션처럼 어떤 아티스트가 메인 MC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무지개 같은 다양한 색깔의 무대를 선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구성이다. 과거 〈윤도현의 러브레터〉나 〈유희열의 스케치북〉처럼 한 MC가 꽤 오랜 기간 프로그램을 끌고 가는 방식에서 탈피한 이러한 시즌제 방식은 훨씬 취향이 다양해진 현시대의 음악 소비 트렌드를 잘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악뮤의 오날오밤〉은 여러모로 수현과 찬혁 남매로 구성된 악동뮤지션이라는 아티스트의 색깔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 독보적인 음색의 소유자로 어떤 노래를 불러도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는 보컬리스트 수현에,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곡, 작사가이자 프로듀서이면서 랩은 물론이고 자기 색깔 확실한 보컬까지 커버하는 찬혁이 더해졌으니 〈악뮤의 오날오밤〉의 무대는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성을 기대하게 만든다. 첫 회 게스트들은 바로 그런 다양성을 보여줬고, 그러면서도 악동뮤지션 특유의 예술적인 면들과 어우러지는 게스트 사이의 구성이 강조됐다. 싱어송라이터로서 오랜 길을 걸어오고 있는 이적이 그렇고, 파격적인 뮤직비디오와 무대 퍼포먼스부터 독보적인 가창력으로 보컬리스트로서도 주목받는 비비가 그렇다. 배우이면서 노래 실

력도 만만찮은 이성경이나 뽕에 대한 탐구를 거듭해 탄생한 ‘뽕’이라는 독창적인 일렉트로니카 앨범으로 한국대중음악상을 거머쥐었고 세계적인 걸그룹 뉴진스의 음악을 맡기도 한 DJ 250도 마찬가지다. 저마다 장르도 세대로 다르지만, 이들은 예술적인 시도들이 도드라진 존재들로 악동뮤지션의 색깔과 어딘가 어우러지는 면이 있다.

〈악뮤의 오날오밤〉은 이처럼 악동뮤지션의 색깔을 닮은 아티스트의 자유로움이 묻어난다. 어디서든 보기 힘든 색다른 무대가 연출되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우리에게 〈낭만닥터 김사부〉나 〈사랑이라 말해요〉 같은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익숙한 이성경이 춤을 추거나 피아노를 치며 성시경의 ‘태양계’를 부르고, 이적이 〈무한도전〉에서 만들어 유재석과 불렀던 ‘압구정 날라리’를 악동뮤지션과 함께 부르는 무대가 만들어진다. 250은 흥 속에 담긴 한, 한 속에서도 피아나는 흥이라고 ‘뽕’을 해석하며 이를 즉석 시연 무대를 통해 설득시킨다.

무엇보다 좋은 건 워낙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포용해 자신들의 색깔로 만들어내는데 익숙한 악동뮤지션이 게스트들과 만들어내는 콜라보 무대다. 이적의 ‘빨래’를 자기 색깔로 부르는 수현의 무대나, 빅뱅의 ‘배드 보이’를 화사와 악동뮤지션이 함께 부르는 무대 같은 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악뮤의 오날오밤〉만의 무대가 아닐 수 없다.

친남매여서 그만큼 가깝지만, 또 거리를 두며 토크대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이들의 케미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게스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정서적인 힘처럼 보인다. 결이 다르지만, 함께 노래할 때는 너무나 잘 어우러지는 수현과 찬혁처럼, 조금 달라도 무대에서는 음악 하나로 충분히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걸 〈악뮤의 오날오밤〉은 보여주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세이프K



김민철 재난미디어센터장

■ 모로코 지진 규모 ‘6.8’…위력은?

9월 8일 밤 규모 6.8의 강진이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강타했습니다. 현재까지 모로코 정부가 발표한 사망자만 3천 명에 육박합니다.

규모 6.8은 매우 강한 강도입니다. 물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부른 동일본 대지진(2011년)은 규모 9.1이었고, 딱 100년 전의 관동대지진(1923년)도 규모 7.9, 중국 탕산 대지진(1976년)은 규모 7.5였으니, 6.8은 그보다는 작긴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한반도에선 발생한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지진입니다.

지진은 규모가 1.0 커질 때마다 에너지는 32배 커집니다. 규모 4.0이 TNT 1킬로톤(kton)의 폭발력입니다. 규모 5.0이면 TNT 32킬로톤, 규모 6.0이면 TNT 1,024킬로톤의 폭발력이니 얼마나 큰 위력일까요. 이 때문에 이런 강한 지진이 나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관동대지진 때 사망자가 10만~14만여 명, 탕산 대지진 때 25만 5천 명에 이릅니다.

■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난 가장 큰 지진은 2016년 경주 지진으로 규모 5.8이었고, 다음은 2017년 포항 지진으로 규모 5.4였습니다. 규모 5.0만 넘어도 상당히 큰

지진 진동 책상 밑으로! 진동 멈추면 나가세요!



습니다. 기상청 등 정부가 그동안 이런저런 대비책을 세웠고 관련 법령도 만들었습니다. 가령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국내에 발생하면 조기경보체계가 작동되고 방송사에 긴급 방송도 요청합니다. 규모 6.0 강진이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에서 수신 거부를 할 수 없는 재난 문자와 함께 60dB 이상의 큰 경보음이 울리도록 해놓기도 했습니다.

■ 지진 시 재난방송 체계는?



송 매체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주요 방송사들은 규모 3.0 이상의 지진부터는 발생 즉시 방송 중인 TV 화면에 스크롤(홀림 자막)과 지도가 표시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할 일이 많습니다. 4.0 이상의 지진과 지진해일주의보 발령 시 30분 이내에 뉴스특보를, 규모 5.0 이상의 지진

지진입니다. 이런 지진이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2010년 이후에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발생할지 알 수도 없

습니다. 기상청 등 정부가 그동안 이런저런 대비책을 세웠고 관련 법령도 만들었습니다. 가령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국내에 발생하면 조기경보체계가 작동되고 방송사에 긴급 방송도 요청합니다. 규모 6.0 강진이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에서 수신 거부를 할 수 없는 재난 문자와 함께 60dB 이상의 큰 경보음이 울리도록 해놓기도 했습니다.

지진은 발생 직후 신속히 상황을 알리고 행동 요령을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엔 방

송 매체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주요 방송사들은 규모 3.0 이상의 지진부터는 발생 즉시 방송 중인 TV 화면에 스크롤(홀림 자막)과 지도가 표시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할 일이 많습니다. 4.0 이상의 지진과 지진해일주의보 발령 시 30분 이내에 뉴스특보를, 규모 5.0 이상의 지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런 일이 꼭 평일 낮에만 나는 것도 아니고, 심야나 휴일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축한 것이 바로 AI 기술 활용 자동 생성 콘텐츠입니다. 기상청 등에서 생산하는 데이터가 실시간 공유되도록 연계해놓고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기사와 큐시트, 그래픽 등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입니다. 2021년에 구축돼 12월 14일 마라도 지진 등 몇 차례 ‘실전 투입’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지진 시 어떻게?

물론 너무 큰 규모의 지진이 나면 이런 대응책이나 재난방송도 다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뭐든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진 시 행동 요령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시죠. 지진은 맨 처음 1~2분간 흔들릴 땐 낙하물을 피해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진동이 멈추면 즉시 건물 밖으로 나가는데, 이때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계단을 이용해 운동장 같은 탁 트인 곳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여진이나 더 큰 지진, 붕괴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진동이 멈추었다고 해서 금방 다시 실내로 돌아와선 안 됩니다.

과 지진해일 경보 시, 그리고 민방공 경보 시엔 10분 내로 뉴스특보를 열어야 합니다. 이는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시큐리티를 찾아주세요”



KBS 시큐리티 월 정기 비상훈련 실시 사진

지난 8월, KBS 별관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 현장엔 곧바로 KBS 시큐리티 근무자가 출동해 자동제세동기로 응급조치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무사히 의식을 회복했다. 지난해 11월에는 KBS 신관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는데 역시 KBS 시큐리티 근무자의 CPR 응급조치 뒤 곧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본사와 지역국, 송중계소 등 전국 53개 시설에서 총 400여 명이 근무 중인 KBS 시큐리티는 각종 시설 경비 업무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제반 업무를 함께 하고 있다.

성인현 KBS 시큐리티 이사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시큐리티 직원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종합상황실(본관 1층, 사내전화 1216)에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달라”며, “더불어 최근 프로그램 방청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출입 시 직원 신분증을 패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자동제세동기 설치장소

· 본관 : 1층 의무실 / 2층 시청자광장 / 어린이집

· 신관 : 1층 출연자 대기실 / 2층 안내데스크 앞 / 신관 공개홀 입구 / 체육관

· 별관 : 1층 안내데스크

단신

2023 KBS 시청자주간 감사음악회 개최·특집 프로그램 방송



이강배(우수상), 신주혁(장려상) 씨가 각각 수상했다.

개막식 당일 저녁 KBS홀에서는 KBS 관현악단의 ‘해설이 있는 영화음악 콘서트’가 열려 소프라노 임지은 씨와 상송 가수 무슈 고, 클래식 보컬그룹 ‘유엔젤 보이스’가 호흡을 맞췄다.

올해 시청자주간에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KBS 1020 시청자위원들이 제작한 <1020세대의 눈으로 본 KBS>, KBS 청주방송총국 특집 다큐멘터리 <단양 마더스 클럽>, 특집 어린이 콘서트 <세상의 모든 똥>, 공사창립 50주년 특별기획 오디오 다큐멘터리 <그때 KBS가 있었다> 등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들이 방송됐다.

올해로 4회를 맞은 KBS 시청자주간 행사가 9월 1일부터 8일까지 성황리에 진행됐다.

KBS 시청자주간은 KBS가 시청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고 시청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KBS 시청자위원회 출범 30주년이었던 2020년부터 매년 9월 첫 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9월 1일 KBS 본관에서 개최된 2023 KBS 시청자주간 개막식에서는 시청자 제작 우수 프로그램들에 대한 KBS 시청자위원회상과 KBS 뉴스의 신뢰도를 높여준 우수 뉴스 제보자들에 대한 시민기자상 상상이 이뤄졌다. KBS 시청자위원회상은 <KBS 열린채널>을 통해 방송된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중 [정선의 젊은 아리랑]을 제작한 최수묵 씨와 [저상버스 탈 결심]을 제작한 박현주 씨가 최우수상을 공동 수상했으며, [할머니의 선생님]을 만든 정효영 씨가 우수상을 받았다. 시민기자상은 KBS 뉴스 제보자 가운데 박종화(대상), 정경희(최우수상),

시청자 참여형 라디오 라이브 스튜디오 ‘스튜디오 콩’ 오픈



시청자 참여형 라디오 라이브 스튜디오 ‘스튜디오 콩’이 문을 열었다. 9월 4일 열린 개소식에는 KBS 임원진 외에도 1020 시청자위원, 차세대위원 등이 참석해 ‘스튜디오 콩’의 첫걸음을 축하했다.

‘스튜디오 콩’은 공영방송만의 차별화된 고품격 라이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청자 공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축된 라디오 스튜디오로, 프로그램에 초대받은 방청객과 KBS를 방문한 시청자가 개방감 있는 시청(視窓)을 통해 라이브 콘텐츠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9월 4일 2FM 황정민의 뮤직쇼 <라라 페스티벌>의 밴드 라이브 생방송을 시작으로, 9월 5일에는 1FM KBS 음악실의 스튜디오 라이브 락서 콘서트 <살롱 드 첼로>와 2FM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 <Housewarming Party>, 9월 6일 1FM <두 개의 소리, 하나의 마음>, 9월 7일 2라디오 임백천의 백뮤직 3주년 <백뮤직 콩창회>, 9월 8일

1FM <금첼성 라이브>가 ‘스튜디오 콩 개소 특집’으로 고품질 사운드의 생생한 라이브 방송을 제공해 함께한 방청객들과 청취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방송사 유일 무료 OTT 앱 [K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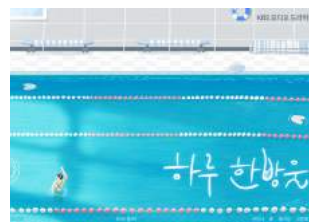
KBS가 9월 3일 방송의 날을 맞이하여 KBS+ 앱을 런칭했다.

KBS+ 앱은 기존에 KBS의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해온 myK 앱을 콘텐츠와 디자인, 이용자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개편한 것으로, 시청자를 위해 더 나은 동영상 콘텐츠 UX를 제공하는 한편,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다크모드’, 어린이 시청자들을 위한 ‘키즈모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버튼 하나로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모드’ 기능을 탑재했다.

또한 KBS 1TV, 2TV와 KBS N의 다섯 개 채널(드라마/조이/스토리/키즈/라이프)의 실시간 방송과 다시보기 서비스, 5만여 개에 이르는 KBS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콘텐츠, 장르별 주간 인기 클럽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재난 발생 시에는 KBS 편성시스템과 연동한 뉴스특보 알람서비스로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 공영방송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계열사 소식

KBS 미디어, 오디오 드라마 <하루 한방울> OST 앨범 발매



KBS 미디어가 KBS 오디오 드라마 <하루 한방울> OST 앨범을 발매했다. <하루 한방울>은 배우 유인나, 가수 추 등이 주연을 맡아 청각장애를 가진 한 인물의 사랑과 우정, 성공과 시련을 감각적으로 그려낸 오디오 드라마로, 9월 4일부터 KBS 2FM STATION Z(매일 밤 12시/

FM 89.1MHz)를 통해 방송되었다.

KBS 미디어가 이번에 발매한 OST에는 적재, 정인, 고영배 등 명품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매력적인 음악으로 오디오 드라마의 재미를 한층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OST 음원은 9월 3일과 5일에 순차 공개되어 현재 유튜브, 스포티파이, 멜론, 지니 등 전 세계 음원 플랫폼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파타스러운 회원님과의 우당탕탕  특근 로맨스

효심이네 각자도생

KBS2 주말드라마

소녀 가장 효심의 인생 독립 프로젝트

〈효심이네 각자도생〉은 타고난 착한 성품과 따뜻한 공감 능력으로 가족에게 평생 헌신해온 셋째 딸 효심(유이 분)이 자신을 힘들게만 했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진정 자신을 위한 삶을 찾고, 딸의 헌신과 희생에 기생했던 가족들 역시 독립적인 삶의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다.

사라진 아버지를 대신해 엄마와 두 오빠, 남동생을 뒷바라지하며 헌신해왔던 헬스트레이너 효심이는 자신이 일하는 피트니스에 등록한 재벌 후계자 태호(하준 분)를 만나며 그동안의 인생을 자각하게 되고, 부모님을 잃은 뒤 마음 둘 곳 없이 외로움을 느끼던 태호는 효심을 만나면서 마음의 안식처를 찾게 되는 남녀 주인공의 로맨스 성장사가 주요 관전 포인트.

이에 더해, 서로를 힘들게 했던 가족들이 점차 제각각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내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떠한 가족의 모습을 지향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태종 이방원〉, 〈공부의 신〉을 연출한 김형일 감독과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솔약국집 아들들〉의 조정선 작가가 의기투합한 〈효심이네 각자도생〉 제작진은 “그간 가족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해본 적 없는 ‘현대판 효녀 심청’ 효심 앞에 태호가 나타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다”며, “주말 안방극장에 달콤한 설렘을 선사할 두 사람의 로맨스를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 매주 토, 일요일 저녁 8시 5분 **KBS2**